

# 대학생의 졸업연기 유형과 취업성과 : 취업목적 휴학의 효과를 중심으로

변진숙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직업학과

## College Students' Delayed Graduation and Employment Achievement : Focusing on the Effects of Employment-Oriented Delay on the Employment Outcomes

Jin-Sook Pyoun

Dept. of Vocation, Kyonggi University Graduate School

**요약** 본 논문은 대졸자의 취업성과에 있어 취업준비 목적의 자발적 졸업연기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 연구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2015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2014GOMS)' 자료를 활용하여 취업준비 목적의 자발적 졸업연기가 정규학기 졸업과 비교해 취업여부와 첫 일자리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취업준비 목적의 자발적 졸업연기는 정규학기 졸업에 비해 취업확률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취업준비 목적의 자발적 졸업연기는 정규학기 졸업에 비해 첫 일자리의 임금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기업은 투명한 채용기준을 제시하여 대학생들이 필요한 역량개발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돕고, 대학은 학생들이 재학 중 단기 일 경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중노동시장 구조를 완화하고 불평등을 해소하여 청년층의 첫 일자리 선택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voluntary delayed graduation for employment preparation on their employment outcomes. For this purpose, the data were obtained from the 2014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GOMS). First, the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voluntary delayed graduation for employment preparation on their employment status. Second, the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voluntary delayed graduation for employment preparation on the wage of their first job. The results showed that students who experienced leave for employment preparation were more likely than others to be employed. In addition, those students who delayed their graduation for employment were more likely than others to earn higher wages on their first job. From these findings, this research shows that firms should present specific criteria of recruitment for job applicants. In addition, the colleges should enhance the short term program for work experience during higher education. Finally, the government should intervene in dual labor market to reduce the inequality and decrease the college students' anxiety about their first-job.

**Keywords** :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Employment Outcomes, College Student, Voluntary Delayed Graduation for Employment Preparation, Wage of First Job

### 1. 서론

대학생들의 노동시장 진입시기가 나날이 지연되어 구

직자 고령화시대가 본격화 되고 있다. 졸업 후 취업까지 소요기간은, 첫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인 경우 2016년 평균 11.2개월로 전년보다 0.2개월 길어졌고, 청년 4명 중

\*Corresponding Author : Jin-Sook Pyoun(Kyonggi Univ.)

Tel: +82-10-9185-3527 email: aienju@empas.com

Received May 11, 2017

Revised May 22, 2017

Accepted June 9, 2017

Published June 30, 2017

1명(26.7%)은 첫 일자리 취업까지 1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1]. 졸업 후 구직기간과 함께 주목할 것은 졸업 이전에 취업을 위해 졸업을 연기하는 경우이다.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졸업을 늦어지는 경우와는 상이하게 자발적으로 졸업을 연기하는 방법으로 주로 휴학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대졸자 중 휴학경험자의 비중은 2016년 5월 기준 44.6%로 확인되었으며, 휴학 사유를 살펴보면 여성은 취업 및 자격시험 준비(61.6%), 어학연수 및 인턴의 현장경험(31.4%) 등 취업 관련된 내용이 주로 많고, 남성은 군 입대로 인한 휴학이 96.8%를 차지하고 있다[1]. 졸업 후 취업시장 문을 열기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대학생들은 재학연한에 맞추어 졸업을 하지 않고, 졸업을 자발적으로 연기하고 노동시장으로 나아가갈 준비활동에 몰두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

노동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한 가장 적극적인 인적자본 투자로 대학교육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하면 당연히 취직을 하고, 좋은 대학을 나오면 더 좋은 일자리를 얻을 것이라는 믿음은 이제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려운 현실이다. 대학 진학률이 2008년 83.8%까지 급등했다가 2016년 고등학교 졸업자 기준 69.8%까지 하락하고는 있으나[1],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볼 때, 고학력 지식근로자는 여전히 과잉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교육이 더 이상 취업시장에서 큰 차별성을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학생들은 좀 더 나은 첫 일자리를 얻기 위하여 경쟁자들과 차별화된 인적자본을 축적하기 위한 선택과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사실, 많은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자발적으로 졸업을 연기하고 있지만, 졸업연기 성과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2]. 한국고용정보원에서 4년제 대졸자의 졸업연기 실태와 취업성과를 분석한 결과 졸업을 연기한 대졸자의 고용률은 76.3%로, 일반졸업자의 고용률 75.7%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었다[3].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입사지원자의 고령화에 부담을 느낀다고 밝혔다. 취업포털 사람인은 461개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인원 중 60%에 가까운(59.4%) 응답자가 나이 많은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고 밝혔다[4]

구직자와 기업 간의 시각차가 존재하지만, 10%를 넘나드는 청년층의 실업률[5]을 고려한다면,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투자하여 취업준비를 위해 졸업을 연기하는 것은 더 이상 드문 현상으로 볼 수 없다[6]. 대학생들의

졸업연기와 관련된 기존 연구는 졸업연기 현상에 대한 탐구[7, 8, 9]와 대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졸업 전 활동과 관련된 대상별 연구[10, 11, 12, 13]가 있다. 구체적인 취업준비활동과 그 성과에 대한 연구로는 어학연수[14, 9, 15], 자격증 취득[16, 17], 재학 중 근로경험[18, 19, 20], 인턴 경험[21, 22]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휴학을 포함한)가 첫 일자리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정규학기에 졸업을 한 대졸자와 비교하여 취업을 위해 졸업을 자발적으로 연기한 대졸자 집단의 취업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변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취업과 노동시장 진입에 관한 진로 교육과 상담,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졸업연기와 취업 여부

대학생들이 졸업을 연기하는 방법은 졸업 요건 중 최저이수학점 미이수, 졸업필수서류 미제출, 졸업유예제도 활용, 학기 중 휴학을 꼽을 수 있다[7]. 같은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졸업연기이유에 대해 졸업 후 삶의 개인적 기대를 충족하기 위한 경우도 있지만 주로, 안정적이고 발전 가능성 있는 일자리에서 첫 일자리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 부족 인식, 진로에 대한 고민, 취업에 유리한 대학재학생 신분 유지를 위해 졸업을 연기한다고 분석하였다. 대학생들이 더 나은 첫 일자리를 위해 졸업을 연기하고 취업준비에 몰두현상은 인적자본론(human capital theory), 이중노동시장론(dual labor market theory), 선발가설론(screening hypothesis theory)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Schultz(1961)가 정립한 인적자본론에서 인간을 투자에 의해 노동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하나의 자본으로 간주하였고, 교육이나 훈련 등의 투자가 개인의 지식이나 기술 등의 인적자본을 축적시키고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임금의 증가로 연결된다고 보았다[23, 24]. 이러한 인적자본 형성을 위해 대학생들은 학교교육 이외에 어학연수, 자격증 준비, 직업훈련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취업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를 하고 있다. 또한, 이중노동시장론의 노동시장 분절현상은 고용과 임금, 더

나아가 복지급여에서도 근로자 간에 차이가 확인되는데, 이것은 근로자 간의 이질성, 양극화를 발생시켜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25]. 대학생들이 첫 일자리를 고용안정성과 임금수준이 높은 1차 시장에서 시작하려는 의지는, 분절되어 연결사다리가 부족한 노동시장론, 입직 당시의 초기 상태가 고착화되는 경향이 큰 낙인효과[26]에서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양질의 첫 일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학교교육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 이외에 어학연수, 자격증 취득, 인턴십이나 일 경험 등의 적극적인 취업준비를 통해 경쟁자에 비해 우위의 입지를 가지려는 것은 선발가설이론으로도 설명 가능하다. 기업이 입사지원자의 생산력을 판단할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훈련가능성이 높은 인재를 선별하기 위해 교육수준을 지원자의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signaling)으로 사용한다는 주장이다. 70% 이상의 대학진학률을 보이는 현실에서, 대학생들은 경쟁자들과 비교해 더 준비된 인재로 보이기 위해서는 학교교육 이외의 적극적인 취업준비를 하고 잠재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인재를 선별하는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다.

## 2.2 취업준비 목적의 자발적 졸업연기와 취업 성과

대학생들은 인적자본을 축적하여 더 나은 첫 일자리를 획득하기 위하여 졸업을 연기하고 있지만 취업준비 목적의 자발적 졸업연기와 취업성공에 대한 연구결과는 아직 단정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2]의 연구에서도 졸업연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 실제 취업성과 보장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합의된 바가 없다고 확인되어, 아직은 취업을 위한 자발적인 졸업연기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취업 준비를 위한 휴학과 각 휴학사유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학기간 연장과 취업간의 관계를 분석한 기존 연구에서 취업 준비를 위한 휴학이 재학기간의 연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고[27], 취업에 대한 열의, 졸업 후 미취업에 대한 불안감 등의 관찰되지 않는 개인특성이 휴학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취업준비를 위한 휴학기간을 연장하면 경제적인 사유로 휴학을 선택한 대졸자에 비해 취업가능성과 임금이 증가한다고 분석하였다[28].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의 2007~2011년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데이터 분석에서 졸업을 연기한 경험이 있

는 졸업자는 그렇지 않은 졸업자와 비교해 고용률은 76.3%, 75.7%로 큰 차이가 없으나, 월평균임금이 높아 취업의 질이 보다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졸업을 연기한 집단이 취업준비를 위한 더 많은 활동을 하여, 그 결과가 더 나은 첫 일자리로 입직할 가능성을 높이는 행동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졸업을 연기하여 고용시장으로의 진출시기가 늦어지더라도 더 나은 일자리로의 입직 가능성을 높이는 것에 가치를 두는 대졸자는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선택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진로 고민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다[7].

취업준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졸업을 연기하는 구체적인 휴학 사유별 취업성공을 살펴보면, 어학연수 경험은 대졸자의 취업 확률을 높이고[9, 15], 임금수준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9, 30, 31]. 그러나 2010년과 2013년 대졸자 간의 취업성공을 비교한 연구[14]에서 어학연수 경험의 취업성과 영향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증 취득의 취업 효과에 대해 기존 연구결과에도 상이한 차이가 있다. [32]의 연구에서는 대학 재학 중에 취득하는 자격증은 대졸자의 취업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3, 33, 34]의 연구에서는 자격증 보유가 취업 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35]는 자격증 보유가 취업여부에는 도움을 주지만 유의미한 임금효과를 가지지는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위와 같이 취업을 위한 자발적 졸업연기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휴학 및 졸업연기 사유, 휴학사유별 취업성과 등에 국한되어 있다. 본 연구는 어학연수, 자격증 준비, 취업준비를 휴학사유로 직·간접적인 취업준비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재학연한 이상의 시간 비용을 선택한 대졸자들이 정규학기 졸업자와 비교하여 첫 일자리에서 유의미한 취업성공을 거두었는가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고자 한다.

## 3. 연구 방법

### 3.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취업준비를 위한 자발적 졸업연기가 취업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의 2015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는 대졸자의 노동시장 진입과 정착 과정에 실증적인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매년 전년도 2~3년제 대학 이상 고등교육과정 졸업생을 모집단으로 약 4%에 해당하는 1만 8천명을 표본 추출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표본의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다. 졸업 후 약 1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대졸자를 대상으로 한 횡단면 조사로 실시되고 있는데 교육과정, 구직활동, 일자리 경험, 근무환경, 직업훈련, 자격증, 가계배경 등 노동시장 진입 및 정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사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다. 2015년도 조사 자료는 2014년 2~3년제, 4년제, 교육대 대졸자 총 18,057명이 참여하였다[3].

### 3.2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취업준비 목적의 자발적 졸업연기 이외에 개인특성, 전공특성, 졸업 전 취업준비 요소 및 가계특성으로 나누어 통제된 후 취업준비 목적의 졸업연기가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개인특성에서는 성별과 연령을 통제하였는데, 성별의 경우 여성을 기준으로 더미처리 하였다. 연령은 대졸청년층을 특정하여 분석하기 위해 30세 이하로 제한하였다. 교육과정과 기간의 이질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2~3년제 대학, 교육대학 졸업자 및 의약계열 전공자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전공특성은 예체능 계열을 기준으로 더미 처리하였고, 졸업 전 취업준비 요소는 취업목표 설정여부를 통제하여 사용하였다. 가계특성은 부모의 학력수준을 범주화한 후 연속형 변수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입학 전 월평균 가구소득은 2017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467,380원을 기준으로, 4,000,000원 미만, 4,000,000원 이상~7,000,000원 미만, 7,000,000원 이상 3개 집단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에서 휴학경험에 대한 사유를 어학연수/해외여행, 편입학(및 재수) 준비, 자격증 및 고시준비, 군 입대, 대학원(유학) 준비, 취업 및 취업준비, 경제적인 이유, 건강상의 이유 및 기타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다. 휴학사유 중 첫 일자리 취업성과에 도움이 되고 더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한 준비는 어학연수, 자격증, 취업준비로 볼 수 있다. 취업준비 목적의 자발적 졸업연기자의 취업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비교집단으로 정규학기 졸업자를 더미 처리하였고, 취업준비 목적의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unit: %, year)

Spec.	N	Mean	S.D.	
gender(Male:1, Female:0)	8,001	56.5%	0.496	
age(year)	8,001	26.1	1.611	
major (%)	humanities	8,001	12.3	0.329
	social science	8,001	18.6	0.389
	education	8,001	8.1	0.272
	engineering	8,001	30.6	0.461
	natural science	8,001	18.9	0.391
	art and sports	8,001	11.5	0.319
Household income (%)	Less than ₩4,000,000	7,989	48.6	0.500
	₩ 4,000,000 ~7,000,000	7,989	40.5	0.491
	More than ₩7,000,000	7,989	11.0	0.313
Father's education(year)	7,935	13.442	3.080	
Mother's education(year)	7,971	12.778	2.633	
tuition debts(Yes:1, No:0)	8,001	0.275	0.447	
employment goal(Yes:1, No:0)	8,001	0.490	0.500	
Graduation Type(%)	Undergraduates' Regular Graduation	8,001	72.1	0.449
	Undergraduates' Delayed Graduation on Employment	8,001	27.9	0.449

Note: Father & Mother's education period: elementary school graduate: 6years, middle school graduate: 9years, high school graduate: 12years, college graduate: 14years, university graduate: 16years, graduate school graduate: 18years

주된 휴학사유를 기준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휴학횟수가 3회 이상으로 여러 휴학사유가 복합적인 경우를 제외하였다. 정규학기 졸업자는 휴학경험이 없는 자와 군 입대 사유로 1회 휴학한 자로 한정하였다. 취업준비 목적의 졸업연기자는 휴학경험이 1회이고 휴학사유가 '어학연수', '자격증 및 고시준비', '취업준비'에 속하는 자와 휴학경험이 2회인 경우는 위 사유에 '군 입대'를 추가하여 한정하였다. 휴학사유에서는 어학연수와 해외여행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어학연수/해외여행'을 휴학사유로 선택한 대졸자 중 어학연수 경험이 없는 경우를 제거하여 어학연수 목적의 휴학으로 구분하였다. '취업 및 취업준비'의 사유를 선택한 대졸자 중 취업으로 인해 휴학을 한 자를 제외시키기 위해, 대학에서 조기취업자로 인정되기 곤란한 즉, 2013년 이전 첫 일자리를 시작한 경우를 제외하였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Group of Graduation Type

Spec.		Undergraduates' Regular Graduation	Undergraduates' Delayed Graduation
		N(%)	N(%)
gender	Male	3,416(59.2%)	1,106(49.5%)
	Female	2,350(40.8%)	1,129(50.5%)
major	humanities	584(10.1%)	402(18.0%)
	social science	830(14.4%)	659(29.5%)
	education	550(9.5%)	94(4.2%)
	engineering	1,858(32.2%)	591(26.4%)
	natural science	1,183(20.5%)	327(14.6%)
	art and sports	761(13.2%)	162(7.2%)
Times of Leave	0	3,160(54.8%)	-
	1	2,606(45.2%)	1,063(47.6%)
	2	-	1,172(52.4%)
Reason of 1 <sup>st</sup> Leave	Foreign Language Abroad	-	386(17.3%)
	License Preparation	-	389(17.4%)
	Military Service	2,606(100%)	951(42.6%)
	Employment Preparation	-	509(22.8%)
Reason of 2 <sup>nd</sup> Leave	Foreign Language Abroad	-	262(22.4%)
	License Preparation	-	298(25.4%)
	Military Service	-	42(3.6%)
	Employment Preparation	-	570(48.6%)

위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SPSS 2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취업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취업여부와 임금수준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취업 여부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취업을 1, 미취업을 0으로 구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임금수준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첫 일자리 월평균 임금을 로그 처리한 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정규학기 졸업자와 취업준비 목적의 자발적 졸업연기자집단의 성별, 전공 및 휴학 특성은 <표 2>와 같다.

## 4. 연구 결과

### 4.1 취업 여부에 미치는 영향 분석

취업준비 목적의 자발적 졸업연기가 취업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정규학기 졸업여부를 더미 처리하여 취업준비 목적의 자발적 졸업연기의 영향을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Table 3.** The Effect of Undergraduates' Delayed Graduation on Employment

Variables		B	S.E.	Exp(B)
gender(Male:1, Female:0)		-0.280 ***	0.082	0.756
age		0.102 ***	0.025	1.107
major	humanities	-0.581 ***	0.132	0.559
	social science	-0.132	0.130	0.876
	education	-0.326 *	0.149	0.722
	engineering	-0.414 ***	0.119	0.661
	natural science	-0.868 ***	0.118	0.420
Household income	Less than ₩4,000,000	-0.022	0.104	0.978
	₩ 4,000,000 ~7,000,000	-0.094	0.102	0.911
Father's education period		-0.026 *	0.013	0.974
Mother's education period		-0.047 **	0.015	0.954
tuition debts(Y: 1, N: 0)		0.160 *	0.071	1.173
employment goal (Y: 1, N: 0)		0.236 ***	0.061	1.267
Undergraduates' Delayed Graduation on Employment (Y: 1, N: 0)		0.155 *	0.079	1.168
Constants		0.323	0.674	1.381
$\chi^2$		204.277 ***		
N		7,908		

Note: \*\*\* $p$ <0.001, \*\* $p$ <0.01, \* $p$ <0.05

Major(reference dummy=art and sports), Household income at the time of entrance in university (reference dummy=More than ₩7,000,000)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개인관련 요인 중 성별, 연령, 전공이 취업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유의수준 0.001 미만에서 취업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 또한 유의수준 0.001 미만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취업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공별로는 예체능 계열에 비해 사회과학계열을 제외한 다른 전공들(인문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의 취업확률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요인에서 입학 전 가구소득은 취업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으나, 부모의 교육년수가 많을수록 취업여부에 부정(-)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학자금 대출이 있을수록 유의미한 수준에서 취업확률이 높고, 졸업 전 취업목표를 설정한 경우가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유의수준 0.001 미만에서 취업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목적의 자발적 졸업연기는 유의수준이 0.05 미만으로 나타나 취업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베타값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취업목적의 자발적 졸업연기가 1단위로 변할 때, 취업이 될 확률은 1.168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나 취업준비 목적의 졸업연기가 취업여부에 유의미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 4.2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 분석

취업준비 목적의 자발적 졸업연기가 첫 일자리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규학기 졸업여부를 더미 처리하여 취업준비 목적의 자발적 졸업연기의 영향을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개인관련 요인 중 성별, 연령이 유의수준 0.001 미만으로 첫 일자리 임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남자일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에서는 예체능 계열에 비해 전 계열(인문계열, 사회과학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의 임금수준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가구 요인에서 입학 전 가구소득은 소득이 월 7,000,000원을 초과하는 집단에 비해 소득이 월 4,000,000원 미만인 집단의 첫 일자리 임금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년수는 대졸자의 첫 일자리 임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학자금 대출이 있을수록 임금에는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졸업 전 취업목표를 설정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취업준비 목적의 자발적 졸업연기는 유의수준 0.001 미만으로 나타나 첫 일자리 임금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출된 계수값에 의하면 취업준비 목적의 자발적 졸업연기가 1단위로 변할 때, 임금수준은 0.057 수준 증가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취업준비를 위한 자발적 졸업연기가 취업여부, 첫 일자리 임금수준 등의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2015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준비를 위해 자발적인 졸업연기를 한 집단

Table 4. The Effect of Undergraduates' Delayed Graduation on the wages of the first job

Variables	B	S.E.	t-value	
Constants	3.619 ***	0.140	25.772	
gender(Male:1, Female:0)	0.074 ***	0.017	4.255	
age	0.053 ***	0.005	9.852	
major	humanities	0.052 *	0.025	2.055
	social science	0.170 ***	0.023	7.402
	education	0.115 ***	0.028	4.085
	engineering	0.231 ***	0.022	10.452
	natural science	0.083 ***	0.023	3.547
Household income	Less than ₩4,000,000	-0.079 ***	0.021	-3.676
	₩4,000,000 ~7,000,000	-0.025	0.021	-1.167
Father's education period	0.001	0.003	0.243	
Mother's education period	-0.001	0.003	-0.415	
tuition debt(Y: 1, N: 0)	-0.037 **	0.014	-2.632	
employment goal (Y: 1, N: 0)	0.037 **	0.012	2.966	
Undergraduates' Delayed Graduation on Employment (Y: 1, N: 0)	0.057 ***	0.015	3.708	
R-Square	0.104			
F Value	54.140 ***			
N	7,908			

Note: \*\*\* $p < 0.001$ , \*\* $p < 0.01$ , \* $p < 0.05$

Major(reference dummy=art and sports), Household income at the time of entrance in university (reference dummy=More than ₩7,000,000)

이 정규학기에 졸업한 집단보다 취업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취업준비를 위한 자발적 졸업연기가 첫 일자리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규학기에 졸업한 집단과 비교하여 임금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준비를 위한 자발적 졸업연기여부 이외에 통제변인들의 영향을 살펴보면, 전공 변인에서 예체능 전공에 비해 사회과학계열을 제외한 다른 전공들의 취업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임금에서는 전 계열이 예체능 계열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예체능 계열 졸업생이 다른 계열에 비해 취업성고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고 하겠다 [14, 28]. 취업에 대한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예체능 계열 학생들이 임금이 높지 않은 일자리이더라도 오히려 빨리 취업을 하고 경력을 쌓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구요인 관련 변인을 살펴보면,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확률은 낮아지나, 임금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자금 대출이 있을 수록 취업확률은 높으나, 임금수준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으면 취업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 취업을 지연하지만 그 성과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학자금 대출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이 있는 경우는 취업을 서둘러, 상대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로 입직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졸업을 자발적으로 미루고 있는 대학생들의 선택이 취업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졸업을 미루고 선택하였던 어학연수, 자격증, 취업준비를 위한 활동들이 노동시장 진입에서 대졸자의 역량을 선별하는 신호기재(signaling)로써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분석단계에서 취업준비를 위한 휴학여부와 상관없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통제에서 제외한 인턴십, 재학 중 일경험이 취업준비를 위한 휴학의 직접적인 활동으로 추측되며, 이러한 활동들이 취업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기업의 직무역량을 우선시 하는 능력중심 채용 경향이 대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활동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취업준비 목적의 자발적 졸업연기와 취업성과에 관한 시사점을 기업, 대학, 정부의 차원에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은 투명한 채용기준을 제시하여 대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역량개발을 위한 활동을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공기업 중심으로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채용이 실시되고 있고 민간기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나, 여전히 많은 대기업에서 지원 가능한 직종만을 제시하고, 전공계열 위주의 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채용정보에서 대학생들은 모호한 지원요건만을 보고 적합한 취업준비 계획을 세우기가 곤란하여 자신의 역량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된다. 이는, 대학생들이 명확한 합격기준을 모르는 채, 경쟁자보다 나은 스펙을 준비하기 위해 불필요한 인적자본을 축적하기 위해 지속적인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직접적인 요인이다.

둘째, 대학은 학생들이 단기 일 경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직무환경을 경험하고 역량을 함양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직무경험을 요구하는 기업의 채용이 확산됨에 따라, 학생들은 인턴십이나 일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찾기 위해 학

교를 휴학하고 있다. 대학은 7+1, 6+2 등 재학연한 내에 학교와 기업 연계 프로그램 방안 또는 방학을 이용한 단기 일 경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설계하여 지원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 활용은 학생들이 재학연한 내 일정기간 동안 진로와 매치되는 직무경험을 하고 학교에서는 직무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며 자신의 진로에 집중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일 경험을 유도하는 제도가 아니라 직무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과 기술, 직무환경을 파악하여 학생들이 On-spec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직무경험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전 진로에 대한 불안감을 현저히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부는 이종노동시장 구조를 완화하고 불평등을 해소하여 청년층의 첫 일자리 선택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요구되는 인적자본을 형성하지 못해 외부노동시장에서 첫 일자리 경험을 할 경우 이것이 낙인효과가 되어 향후 일자리 조건에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다수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7, 26]. 해당 이유가 대학생들의 취업준비를 위한 자발적인 졸업연기로 이어지고, 무분별한 스펙쌓기의 경쟁으로 유인하게 된다. 전공에 몰입하고 자신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탐색한 대학생들이 첫 일자리에서 쌓은 직무역량으로 더 나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무분별한 취업준비를 멈출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취업준비를 위한 졸업연기자와 정규학기 졸업자에 대한 다양한 비교 연구가 없는 실정에서, 졸업 전에 휴학을 하고 취업준비를 할 것이냐, 재학기간에 맞춘 졸업을 할 것이냐의 갈림길에서 다른 선택을 한 집단의 취업성과를 비교하고자 시도한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취업성과를 취업여부, 임금수준으로만 분석하고 첫 일자리의 적응여부, 직무만족도 등의 다양한 일의 환경을 분석하지 않았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취업준비를 위한 졸업연기를 선택한 후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 그 활동이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하는지 향후, 질적 접근 방법의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1] Statics Korea, <http://kostat.go.kr>
- [2] S. I. Jo, E. A. Kim, "The Study on the Difference of Awareness about Job Requirements (SPEC) between Human Resources Manager and University Student Preparing for Job Placement",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 4, no. 1, pp. 41-61, 2014.
- [3]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http://www.keis.or.kr>
- [4] The Korea Herald, "The job applicants are getting old", February. 23, 2015. [Online]. Available: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223000346&md=20150223101912\\_BL](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223000346&md=20150223101912_BL)
- [5] Statics Korea,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3/2/index.board](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3/2/index.board)
- [6] H. J. Chu, S. H. Cha, "An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Four-Year College Students' Stop-Out",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vol. 29, no. 1, pp. 277-293, 2011.
- [7] K. H. Cho, J. H. Lim, S. J. Song, C. Y. Jyung, J. M. Kim, "Qualitative Study about the Undergraduates' Delayed Graduation as a Voluntary Choice in Seoul",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vol. 48, no. 2, pp. 105-128, 2016. DOI: <https://doi.org/10.23840/agehrd.2016.48.2.105>
- [8] K. Y. Kang, S. K. Park, J. K. Lee, "The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on Graduation Moratorium Experiences of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 34, no. 2, pp. 31-51, 2015.
- [9] H. J. Kil, Y. M. Choi, "The Effects of Individual and College Characteristics on Graduates Employment Statu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 33, no. 6, pp. 1-26, 2014.
- [10] S. Y. Kim, "A Study on Female University Students' Career Preparation",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vol. 30, pp. 125-143, 1999.
- [11] S. M. Choe, "The Effect on Employment of Employment Preparation Activities in College Graduat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4, pp. 2556-2563, 2015. DOI: <https://doi.org/10.5762/KAIS.2015.16.4.2556>
- [12] Y. M. Lee, S. Y. Lee, J. Y. Lim, "An Analysis of Art, Music, Sports and Dance Graduates' School-to-Work Transition Preparation and Employment Outcomes",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 52, no. 1, pp. 1-28, 2013.
- [13] J. S. Kim, "The Difference of Pre-employment Activities and Its Effect on Transition of Four-year College Graduates",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vol. 40, no. 1, pp. 141-165, 2009.
- [14] J. K. Ahn, S. M. Oh, "Declining Returns to Studying Foreign Language Abroad on Labor Market Outcome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vol. 26, no. 3, pp. 117-139, 2016.
- [15] B. J. Kim, H. J. Seo, "Analysis on Student and University Variables Affecting First Employment of College Graduates", *The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vol. 22, no. 4, pp. 243-268, 2013.
- [16] Y. S. Ahn, J. Y. Jung, Y. S. Kim, "A Qualitative Study on the License Acquisition of University Graduates and Employment: Focus on the Perception of Enterprise Personnels", *Journal of Korean HRD Research*, vol. 8, no. 1, pp. 54-73, 2013.
- [17] H. J. Kwon, Y. H. Lee, "The Effect of Occupational Certification on the Labor Market of the Graduate Youth",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 28, no. 4, pp. 95-111, 2009.
- [18] Y. S. Song, "The effects of Work Experience during Higher Education on Employm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8, no. 2, pp. 287-293,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2.287>
- [19] K. R. Roh, Y. H. Park, S. J. Hur, "The effects of participation in university's career development programs on college graduates' employment, employment status, and job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49, no. 1, pp. 63-92, 2011.
- [20] C. Y. Lee, "The Effect of Working while in College on Educational Outcomes", *Journal of Employment and Skills Development*, vol. 15, no. 3, pp. 1-25, 2012.
- [21] S. J. Lee, M. R. Kim, "A Study on Transition of the Labor Market of Internship Workers", *Journal of Employment and Skills Development*, vol. 13, no. 1, pp. 1-25, 2010.
- [22] K. R. Roh, S. J. Hur, "The Effects of Vocational Training and Intership on Youth Workers' the Economic Outcome and Job Satisfaction",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 30, no. 3, pp. 93-109, 2011.
- [23] G. S. Becker,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3rd e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IL, pp. 15-28, 1994. DOI: <https://doi.org/10.7208/chicago/9780226041223.001.0001>
- [24] J. Mincer, "Studies in Human Capital, Volume 1", Edward Elgar, England, 1993.
- [25] H. J. Kim, "A study on dual labor market and critical factors affecting welfare benefit gaps between workers in Korea", Yonsei University, MA. Thesis, 2016.
- [26] S. H. Kang, J. K. Ahn, "Stigma Effect of Unemployment of the College Graduates", *Association Of Korean Economic Studies*, vol. 28, no. 2, pp. 201-231, 2010.
- [27] H. D. Kim, "Korean College Student Stopout Experiences and Employment Outcomes", *Quarterly Journal of Labor Policy*, vol. 13, no. 3, pp. 125-151, 2013.
- [28] S. Y. Jeong, K. S. Park, "Employment and Wage Effects of the Duration of Leave of Absence from College", *Korean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 36, no. 3, pp. 1-27, 2013.
- [29] J. K. Ahn, "The Impact of the Language Study Training abroad on Labor Market Entrance",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vol. 27, no. 2, pp. 203-231, 2009.
- [30] H. J. Chu, "Individual and College Effects on New



- Graduates",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vol. 30, no. 1, pp. 603-626, 2012.
- [31] H. J. Yoo, T. I. Chung, E. J. Chun, "Labor Market Performance of Economically Active Korean College Graduates Population",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vol. 37, no. 2, pp. 49-69, 2014.
- [32] C. K. Chae, T. G. Kim, "Determinants of Employment Status Of University(College) Graduates Youth",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 28, no. 2, pp. 89-107, 2009.
- [33] C. S. Park, "A Study on the Effect of Overseas Language Training Programs upon the Transition from College to Labor Market", Journal of Employment and Skills Development, vol. 12, no. 1, pp. 117-139, 2009.
- [34] M. K. Lee, "Actual Conditions Of Professional Qualification Possessor And Effects Of Professional Qualification Possession On Employment And Wage",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Research, vol. 15, no. 3, pp. 131-149, 2008.
- [35] B. H. Lee, "The effects of Vocational Qualifications on Labor Market Outcomes in Korea", Quarterly Journal of Labor Policy, vol. 3, no. 4, pp. 25-48, 2003.
- 

변 진 숙(Jin-Sook Pyoun)

[정회원]



- 2013년 2월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직업학과(직업학석사)
- 2015년 8월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직업학과 박사과정 수료
- 2015년 9월 ~ 현재 : 숭실대학교 베어드학부대학 초빙교수

<관심분야>

진로교육, 직업심리, 직업정보, 대학생진로